

산상수훈 강의(마태복음 5장~7장)

윤홍식

5장

○ 산 위에서 가르침을 펴시다

1. 그때 예수님께서서 군중을 보시고는 산으로 오르셨다. 자리에 앉으시자 그의 제자들이 그분에게 다가갔다.
2.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가르치셨다.

○ 8가지 행복(八福)

3. “① ‘영’이 가난한 자들은 축복받을 것이다.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다. (영적 금식, 양심추구)
4. ② 애통해 하는 자들은 축복받을 것이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수오지심)
5. ③ 온화한 자들은 축복받을 것이다. 그들이 땅을 물려받을 것이다. (측은지심)
6. ④ ‘정의’에 굶주린 자들은 축복받을 것이다. 그들이 충만해질 것이다. (수오지심)
7. ⑤ 자비로운 자들은 축복받을 것이다. 그들에게 자비가 베풀어질 것이다. (측은지심)
8. ⑥ 마음이 청정한 자들은 축복받을 것이다. 그들이 ‘하느님’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양심추구)
9. ⑦ 평화를 가져오는 자들은 축복받을 것이다. 그들이 ‘하느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사양지심)
10. ⑧ ‘정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들은 축복받을 것이다.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다. (수오지심)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양심을 따르고자 노력하는 이들 모두 축복받을 것이다!
하늘의 왕국은 양심의 왕국이니 그들의 것이다!)

11. 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그대들을 모욕하고 박해하며, 그대들에게 반대하여 거짓으로 온갖 악한 말들을 할 때, 그대들은 축복받을 것이다.

12.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그대들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대들 이전의 선지자들에게도 똑같이 박해하였다.”

○ 세상의 소금과 빛

13. “그대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나 만약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더 이상 아무 쓸모가 없으니, 밖에 던져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뿐이다.

14. 그대들은 세상의 ‘빛’이다. 언덕 위에 세운 도시는 숨길 수 없다.

15. 사람들은 등불을 켜서 상자 안이 아니라, 등경 위에 놓는다. 그래야 집의 모든 사람들을 비출 수 있다. (성령의 빛, 양심의 빛)

16. 이와 같이, 그대들의 ‘빛’이 사람들의 앞을 비추게 되면, 사람들이 그대들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그대들의 아버지를 찬양할 것이다.”

○ 예수님과 율법

17.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폐하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을 완성하려고 온 것이다.

18. 내가 진실로 그대들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율법에서 한 자 한 획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19. 이 계명들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여기거나, 또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계명들을 지키고, 또한 남에게 이 계명들을 가르치는 자는 하늘의 왕국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20. 내가 그대들에게 이르노니, 그대들의 정의로움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

인들의 정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 『누가복음』 (11:42)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薰香)과 모든 채소는 십일조를 내면서, ‘정의로움’과 ‘하느님의 사랑’은 무시하였기 때문이다. 십일조도 실천해야 하나, 이런 것들도 당연히 실천해야 한다.

* 『마태복음』 (19:16~26)

그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물었다. “선생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나에게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하신 분은 오직 ‘한 분’(아버지 하느님) 뿐이시다. 그대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다면, ‘계명들’을 지켜야 한다.” 그 사람이 “어떤 것들입니까?”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리고 그대의 이웃을 그대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것이다.”

그 젊은이가 다시 묻기를 “그 모든 것들은 저는 지켜왔습니다. 저에게 무엇이 부족합니까?”라고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완전해지고 싶다면, 가서 그대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그대가 하늘에서 보물을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젊은이가 이 말씀을 듣더니 슬퍼하며 떠났다. 그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재물을 남에게 베풀어 그대의 영혼을 빛나게 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그대들에게 말한다. 부자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내가 다시 그대들에게 이르노니,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하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울 것이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몹시 놀라서 물었다.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말씀하셨다.
“사람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하나,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 화해하라

21. “그대들은 옛사람들이 ‘살인하지 마라. 살인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라고 한 것을 들었을 것이다.

22. 그러나 나는 그대들에게 이르노니, 자신의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 자신의 형제들에게 ‘하찮은 놈!’이라고 하는 자는 공회公會(산헤드린)에 넘겨질 것이며, ‘멍청이!’라고 하는 자는 불타는 지옥에 던져질 것이다.

23. 그러므로 그대들이 제단에 예물을 바치려고 하다가, 그대들의 형제가 그대들에게 원망을 품고 있음이 떠오르거든,

24. 예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물러가서, 먼저 그대들의 형제와 화해한 뒤에 돌아와서 예물을 바쳐야 한다.

25. 그대들을 고소한 자와 함께 법정으로 가고 있다면, 도중에 빨리 화해하라. 그러지 않으면 고소한 자가 그대들을 재판관에게 넘기고 재판관은 그대들을 형리에게 넘겨 감옥에 갇힐 것이다.

26. 내가 진실로 그대들에게 이르노니, 마지막 한 닢까지 갚기 전에는 결코 나올 수 없을 것이다.”

○ 속마음으로도 죄를 짓지 마라

27. “그대들은 ‘간음하지 마라’라고 들었을 것이다.

28. 그러나 나는 그대들에게 말한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와 간음한 것이다.

29. 오른쪽 눈이 그대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던져 버려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한 부분을 잃는 것이 나을 것이다.

30. 그리고 오른손이 그대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서 던져 버려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한 부분을 잃는 것이 나을 것이다.”

* 『마태복음』 (23:25~28)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잔과 접시의 바깥만 깨끗이 하나, 그 안은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차 있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먼저 잔의 ‘속’을 깨끗이 하여라. 그러면 ‘바깥’도 깨끗해질 것이다.

* 『중용中庸』

군자는 보이지 않는 바를 경계하고 진실하게 하며, 들리지 않는 바를 두려워한다. 숨겨진 것보다 더 잘 보이는 것은 없고, 미세한 것보다 더 잘 드러나는 것은 없다. 그러므로 군자는 그 ‘자신의 속마음’을 신중히 한다.

君子 戒慎乎其所不睹 恐懼乎其所不聞 莫見乎隱 莫顯乎微 故君子慎其獨也

* 『누가복음』 (12:2~3)

숨겨둔 것은 드러날 것이며, 감춰진 것은 알려질 것이다. 그대들이 어두운 곳에서 말한 것들은 밝은 곳에서 들릴 것이며, 그대들이 안방에서 귀에다 속삭인 말들은 지붕 위에서 선포될 것이다.

○ 타당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지 마라

31. “그대들은 ‘자신의 아내를 버리는 자는, 그 여자에게 이혼장을 써 주어야 한다’라고 들었을 것이다.

32. 그러나 나는 그대들에게 말한다. 불륜을 저지른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를 버리는 자는, 그 여자를 간음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버림받은 여자와 혼인하는 자도 간음하는 것이다.” (결혼의 본질 깨뜨릴 때만 이혼 가능)

○ 자명한 이야기만 하라

33. “그대들은 옛사람들이 ‘맹세를 깨지 마라. 그대들이 주님께 맹세한 것을 지켜라’라고 한 것을 들었을 것이다.

34. 그러나 나는 그대들에게 이르노니, 일체 맹세하지 마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하느님의 옥좌이기 때문이다.

35.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그분의 발판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위대한 왕의 성이기 때문이다.

36. 그대들의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그대들이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37. 그대들은 그저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오’할 것은 ‘아니오’라고만 해야 한다. 그 이상의 말은 ‘악행’에서 나오는 것이다.”

○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38. “그대들은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아야 한다’라고 들었을 것이다. (동해보복同害報復, 탈리온talion)

39. 그러나 나는 진실로 그대들에게 이르노니, 악인에게 대적하지 마라. 누군가 그대들의 오른뺨을 치거든 다른 뺨마저 돌려 대라.

40. 그리고 누군가 그대들을 재판에 걸어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거든 겉옷까지 내주어라. (성령의 진노, 양심의 정의로운 진노는 가능하다!)

41. 누군가 그대들에게 5리를 가자고 강요하거든, 함께 10리를 가주어라.

42. 그대들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를 거절하지 마라.”

(처벌의 목적은 단순한 복수나 예방이 아니라, 범죄에 상응하는 공정한 처벌을 가하여, 가해자의 마비된 양심을 회복시키고, 피해자 및 모든 관계자의 양심을 만족시켜, 정의를 구현하고 사회 전체의 양심을 건강하게 함에 있다. 이것이 진정한 복수이자 예방이다. 이를 게을리 할 때 사회 전체의 양심은 마비되고 위축되어 범죄는 더욱 치성해질 것이다. 단순히 범죄 예방을 위해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처벌로 정의가 늘 구현될 때 범죄가 절로 예방되는 것이다.)

* 『요한복음』 (18:19~23)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그분의 제자들과 가르침에 대해 묻자, 예수님이 대답하시길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 놓고 이야기하였다. 나는 언제나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히 이야기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런데 왜 나에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이들에게 물어보라. 내가 말한 것을 그들이 알고 있다”라고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곁에 서 있던 성전 경비병 하나가 예수님의 뺨을 치며, “네가 대제사장께 그 따위로 대답하느냐?”라고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길 “내가 잘못 이야기하였다면, 그 잘못의 증거를 대거라. 그러나 옳게 이야기하였다면 왜 나를 치느냐?”라고 하셨다.

*** 『로마서』 (12:17~21)**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십시오. 그대들의 역량대로 모든 사람과 평화로이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이들이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느님의 진노에 맡기십시오. 성경에서도 “복수는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으리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그대들의 원수가 굶주리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하거든 마실 것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은 그대가 숯불을 그의 머리에 놓는 셈입니다. 악에 굴복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 『로마서』 (13:4~5)**

관원들은 그대의 이익을 위하여 일하는 하느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그대들이 악을 행할 경우에는 두려워하십시오. 그들이 공연히 칼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악을 저지르는 자에게 하느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하느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진노’ 때문만이 아니라 ‘양심’ 때문에도 복종해야 합니다.

*** 『로마서』 (2:6~8)**

하느님께서서는 각자에게 그 행실대로 갚으십니다. 인내하고 선을 행하면서 영광과 존귀함과 불멸을 추구하는 이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기심에 사로잡혀 진리를 거스르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격분’

을 내리십니다.

○ 원수를 사랑하여라

43. “그대들은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라고 들었을 것이다.
44. 그러나 나는 그대들에게 말한다. 그대들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그대들을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45. 그래야 그대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분께서는 악한 이에게나 선한 이에게나 당신의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정의로운 이에게나 불의한 이에게나 비를 내려 주신다. (하느님의 정의로운 진노는 별개!)
46. 만약 그대들이 자신을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는가? 그것은 세리들도 하지 않은가?
47. 만약 그대들이 자신의 형제들에게만 인사한다면, 남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었느냐? 그런 것은 다른 민족 사람들도 하지 않느냐?
48.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그대들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 『노자老子』

크거나 작거나 많거나 적거나, 원한은 ‘덕德’으로 갚아야 한다.
大小多少 報怨以德 (덕德은 양심直心の 실천行이다!)

6장

○ 올바른 자선

1.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정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대들이 그렇게 한다면, 그대들은 하늘에 계신 그대들의 아버지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할 것이다. (양심이 아닌 욕심으로 하는 정의는 위선이다!)
2. 그러므로 그대들이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듯이, 스스로 나팔을 불지 마라! 내가 그대들

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그들은 이미 충분히 보상을 받았다.

3. 그대들이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4. 그렇게 하여 그대들의 자선을 숨겨 두어라. 그러면 은밀한 것도 보시는 그대들의 아버지께서 그대들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무상보시無相布施!)

○ 올바른 기도

5. 또한 그대들은 ‘기도’를 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마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이나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그대들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그들은 이미 충분히 보상을 받았다.

6. 그러니 그대들은 기도할 때, 방으로 가서 문을 닫고 보이지 않는 그대들의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면 은밀한 것도 보시는 그대들의 아버지께서 그대들에게 보상해주실 것이다.

7. 그리고 그대들이 기도할 때,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들은 말이 많아야 아버지께 들릴 것이라고 생각한다.

8. 그들처럼 기도하지 마라. 그대들의 아버지께서는 그대들에게 필요한 것을 그분께 요청하기 전에 아시느니라. (아버지! 한 마디로도 충분하다)

○ 주의 기도

9. 그러므로 그대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 거룩하십니다.

10. 당신의 ‘왕국’이 임하였으니,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11.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12.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13.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악’에서 구원해주십시오.”

14. 만약 그대들이 다른 이들의 허물을 용서한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그대들을 용서하실 것이다.

15. 그러나 그대들이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아버지께서도 그대들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하느님의 왕국은 본래 지혜와 사랑과 권능이 충만하다. 그러나 땅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우리의 생각·감정·육체는 악에 휘둘리며, 이 세상 또한 그러하다. 진정한 하느님의 자녀, 사도는 자신의 온 몸에서 하느님의 왕국을 이루고, 나아가 온 세상에서 사랑과 정의를 구현하여 악을 물리친다!)

* 『요한복음』 (4:24)

하느님은 ‘영靈’이시다! 그러므로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 『누가복음』 (17:20~21)

한 번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느님의 왕국’이 언제 오느냐는 질문을 받으셨다. 그들에게 대답하시길 “하느님의 왕국은 눈에 보이는 것들로 오지 않는다. 또한 ‘보라, 여기에 있다!’거나 ‘저기에 있다!’하고 말할 수도 없을 것이다. 사실 ‘하느님의 왕국’은 그대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셨다.
(하느님의 왕국은 우리의 내면의 성령이며, 순수한 의식이다!)

* 『로마서』 (14:17)

‘하느님의 왕국’은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정의로움과 평화와 기쁨입니다.

* 『출애굽기』 (3:14)

나는 “내가 있다!”는 것일 따름이다.(I Am That I Am)

* 『사도행전』 (17:28)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면서, 움직이고, 존재합니다. 그대들의 시인 중에 누군가가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다.

○ 올바른 금식

16. 그대들이 ‘금식’할 때는, 위선자들처럼 침통한 얼굴을 하지 마라! 그들은 그들이 금식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런 어두운 얼굴을 하는 것이다. 내가 그대들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그들은 이미 충분히 보상을 받았다. (욕심으로 하는 금식은 올바른 금식이 아니다!)

17. 금식할 때는 얼굴을 씻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라.

18. 그리하여 그대들이 금식하는 것을 남에게 드러내지 말고, 오직 그대들의 아버지에게만 보여라! 은밀한 것도 보시는 그대들의 아버지께서 그대들에게 보상해주실 것이다.

○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19. “그대들은 자신을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마라. 땅에서는 좀과 녹이 망가뜨리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 훔쳐 간다.

20. 그러므로 그대들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거기에는 좀과 녹이 망가뜨리지 못하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 가지도 못한다.

21. 사실 그대들의 보물이 있는 곳에 그대들의 마음도 있다.”

(불변의 보물이란 사실 우리의 밝아진 영혼이다. 우리가 대가를 바라지 않는 자선을 베풀수록 우리가 하느님께 받을 보상이 쌓여가며, 우리 안에서 성령의 은총은 더욱 밝게 드러난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최고 보물이다.)

* 불교의 3가지 회향廻向 ① 보리회향, ② 중생회향, ③실제회향. (최고의 영적 재테크)

○ 늘 깨어있어라

22.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대들의 눈이 온전하면 온몸이 환할 것이고,

23. 그대들의 눈이 온전하지 못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니 그대들 내면에 있는 ‘빛’(성령·양심)이 어둠이라면, 그 어둠이 얼마나 짙겠는가?”

○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24.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는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떠받들고 다른 쪽을 업신여기게 될 것이다. 그대들은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 『서경書經』 「대우모大禹謨」

‘욕심’은 위태롭고 ‘양심’은 미미하다. 오직 양심을 정밀하고 한결같이 해야 한다. 그래야 진실로 ‘중심’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人心惟危 道心惟微 惟精惟一 允執厥中

* 『갈라디아서』 (5:16~17)

‘성령에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육체’의 욕망을 채우지 마십시오. ‘육체의 욕망’은 성령에 반대되고, ‘성령의 뜻’은 육체에 반대되기 때문입니다.

* 『갈라디아서』 (5:22~25)

‘성령의 열매’는 ① 사랑 ② 기쁨 ③ 평화 ④ 인내 ⑤ 관대 ⑥ 선량 ⑦ 성실 ⑧ 온순 ⑨ 절제이니, 어떠한 법도 이것들에 저항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자신의 육체를 그것의 욕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가니 성령을 따라갑시다!

○ 먼저 그분의 왕국과 정의로움을 구하라

25. “그러므로 내가 그대들에게 이르노니, 그대들의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또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 까?’ 걱정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고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느냐? (의식주를 걱정하지 마라! 오직 성령과 양심을 구하라!)

26. 하늘을 나는 새들을 살펴보라. 그것들은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으며 곳간에 쌓아두지도 않는다. 그러나 그대들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서 그것들을 먹여 주신다. 그대들은 그것들보다 더 귀하지 않은가?

27. 그대들 가운데 누가 걱정한다고 수명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는가?

28. 그리고 그대들은 왜 옷을 걱정을 하는가? 들에 핀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살펴보라. 그것들은 수고하지도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29. 그러나 내가 그대들에게 이르노니, 솔로몬의 온갖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큼 차려입지 못하였다.

30. 오늘 여기 있다가도 내일이면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까지 하느님께서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그대들이야 훨씬 더 잘 입히시지 않겠는가?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31.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고 걱정하지 마라!

32.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이방인들도 찾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그대들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대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다.

33. 그대들은 무엇보다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정의로움’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도 함께 받게 될 것이다. (『로마서』 (14:17), 하느님의 왕국은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정의로움과 평화와 기쁨입니다.)

34. 그러므로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은 내일이 걱정하도록 하라.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충분하다. (아버지를 믿고 모든 근심·걱정을 맡겨라!)

7장

○ 남을 심판하지 마라

1.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래야 그대들도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2. 그대들이 남을 심판하는 그대로 그대들도 심판받을 것이며, 그대들이 남을 헤아리는 잣대로 그대들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3. 그대들은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그대들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알아차리지 못하는가?

4. 그대들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형제에게 ‘내가 네 눈에서 티를 빼주겠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5. 위선자들이야, 먼저 그대들의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그대들이 뚜렷이 보고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낼 수 있을 것이다.”

* 『명심보감明心寶鑑』

남을 질책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질책하고,
자신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남을 용서하라.

以責人之心 責己 以恕己之心 恕人

(자신의 양심부터 성찰하라!, 책인여기責人如己 책기여인責己如人)

* 『법구경法句經』

남의 잘못을 질책하지 말고

남이 행한 일과 행하지 않은 일을 심판하지도 마라.

오직 자신이 행한 일과 행하지 않은 일을 스스로 반성하여 살펴보라.

○ 거룩한 것을 욕되게 하지 마라

6.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마라! 그대들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짓밟고 돌아서서 그대들을 해칠 것이다.”

(욕심에 충만한 소인小人은 양심을 추구하는 군자君子를 해치려고 덤빈다!)

○ 구하면 얻을 것이다

7. “청하라, 그대들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대들이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대들에게 열릴 것이다.

8.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9. 그대들 가운데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빵을 청하는데, 돌을 주겠느냐?

10. 생선을 청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11. 그대들이 악해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좋은 것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냐?”

* 『누가복음』 (11:9~13)

“내가 그대들에게 말한다. 청하라, 그대들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대들이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대들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그대들 가운데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청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느냐? 달걀을 청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그대들이 악해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성령’(양심)을 얼마나 더 잘 주시겠느냐?”

* 『맹자孟子』

구하면 얻을 수 있고, 내버려두면 잃어버리는 것이 있다. 이러한 구함은 얻는데 도움이 되니(구하면 누구나 얻을 수 있다!), 구하는 것이 ‘나’에게 있기 때문이다(본래 내가 가진 것을 구하는 것!).

求則得之 舍則失之 是求有益於得也 求在我者也

* 『마가복음』 (4:3~8)

들어보라,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림에, 어떤 것들은 길 위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어떤 것들은 돌 위에 떨어져서,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이 즉시 돋아났으나, 뿌리가 없었기에 해가 솟아오르자 말라버렸다. 또 어떤 것들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져서, 가시덤불에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했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 그리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 『맹자』

‘사랑·정의·예절·지혜’(仁義禮智)는 바깥으로부터 말미암아 나에게 녹아든 것이 아니다. 내가 본래부터 가지고 있던 것이나, 다만 생각하지 않았을

뿐이다. 그래서 말하기를 ‘구하면 얻고 내버려두면 잃어버린다’라고 한 것이다. 혹은 서로 배가 되기도 하고 다섯 배가 되기도 하여 헤아릴 수 없는 것은, 그 재능을 모두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仁義禮智 非由外鑠我也 我固有之也 弗思耳矣 故曰 求則得之 舍則失之 或相倍蓰而無算者 不能盡其才者也

○ 인간관계의 황금률

12.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이 그대들에게 해 주기를 바라는 대로, 그대들도 남에게 해 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골자이다.”

* 『논어論語』

사랑하는 자는 자기가 서고 싶으면 남도 세워 주고, 자기가 이르고 싶으면 남도 이르게 해준다. 자기를 살펴서 남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 이것을 ‘사랑의 올바른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仁者 己欲立而立人 己欲達而達人 能近取譬 可謂仁之方也已

* 『로마서』 (13:9~10)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라는 계명과 그 밖의 어떠한 계명도,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라는 하나의 계명으로 요약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 『요한복음』 (13:34~35)

내가 그대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겠다. 서로를 사랑하라! 내가 그대들을 사랑한 것처럼 그대들도 서로를 사랑하라. 만약 그대들이 서로를 사랑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그대들이 나의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 『요한1서』 (4:7~8)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이는 모두 하느님에게서 태어났으며 하느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 『마가복음』 (12:28~31)**

율법학자 중 한 사람이 그들이 토론하는 것을 듣다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잘 해주시는 것을 보고는 예수님께 묻기를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은 무엇입니까?”라고 하였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길 “① 첫 번째는 바로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의 주이신 하느님은 유일한 주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과 힘을 다하여, 주이신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敬天)라는 것이 그것이다. ② 두 번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愛人)라는 것이 그것이다. 이것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라고 하셨다.

*** 『갈라디아서』 (5:14)**

모든 율법은 한 가지 계명으로 요약됩니다. 그것은 바로 “네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13.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14.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얼마나 작고 그 길이 좁아서, 찾는 이가 적다.”
(욕심은 위태롭고 양심은 미미하다. 『서경』)

○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

15. “그대들은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그대들에게 오지만 속은 노략질하는 이리이다.

16. 그대들은 ‘열매’를 보고 그들을 판단해야 한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거두어들이고,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거두어들이겠는가?
17. 이처럼 ‘좋은 나무’(속마음)는 모두 ‘좋은 열매’(언행)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18.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19.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모든 나무는 모두 잘려서 불에 던져진다.
20. 그러므로 그대들은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판단할 수 있다.”

* 『마태복음』 (12 : 33~35)

‘좋은 열매’를 얻으려거든 ‘좋은 나무’를 길러라. 나무가 나쁘면 열매도 나쁘다.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알 수 있다. 이 독사의 족속들이! 그렇게 악하면서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결국 마음에 가득 찬 것이 입으로 나오는 법이다.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마음에 쌓아 두었다가 선한 것을 내놓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마음에 쌓아 두었다가 악한 것을 내놓는 것이 아니겠느냐. (예수님의 진노는 성령의 진노, 양심의 진노, 사랑의 진노이다!)

○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라

21. “나에게 ‘주님, 주님!’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모두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직 하늘에 계시는 나의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자라야 그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 (성령·양심을 따르는 자!)
22. 그 날에는 많은 사람이 나를 보고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하고 말할 것이다. (욕심을 따르는 자!)
23. 그러나 그 때에 나는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너희 악한 자들이! 나에게서 물러가라. 나는 너희들을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 『요한복음』 (6 : 38)

나는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하느님)의 뜻을 실천하고자 하늘에서 내려왔다. (생각·감정·육체와 이 세상 속에서 양심을 실천하시려 함!)

* 『요한복음』 (14:6~7)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만약 그대들이 ‘나’를 안다면, 그대들은 또한 ‘아버지’를 알게 될 것이다. 지금부터 그대들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를 뵈는 것이다. (나를 통해 드러난 성령·양심을 따르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 수 없다!)

* 『요한복음』 (14:8~10)

빌립이 묻기를 “주여, 우리들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충분하겠습니다”라고 하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빌립이여, 내가 그대들과 그렇게 오래 지냈는데도, 그대는 ‘나’를 모르는가? 나를 본 사람은 누구나 아버지를 본 것이다. 어떻게 나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할 수 있는가? 그대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하겠는가? 내가 그대들에게 하는 말은 나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내 안에 살아 계시는 아버지께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 『요한복음』 (12:44~45)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 『요한복음』 (4:34)

예수께서 이르시길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며,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다”라고 하셨다. (양심의 실천이 그분의 일)

* 『중용中庸』

‘하느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본성’(性)이라 이르고, 본성을 따르는 것을 ‘길’(道)이라 이르며, 길을 닦는 것을 ‘가르침’(敎)이라 이른다.

天命之謂性 率性之謂道 修道之謂教

○ 내 말을 실천하라

24. “그러므로 나의 이 말들을 듣고 실천하는 이는, 모두 자신의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을 것이다. (실천이 없이는 모두 허망할 뿐!)

25. 비가 내려서 강물이 밀려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어섰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이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다.

26.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 실천하지 않는 자는, 모두 자신의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27. 비가 내려서 강물이 밀려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휘몰아치자 무너져 버렸다. 그 집은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다.”

* 『요한복음』 (8:31~32)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길 “만약 그대들이 나의 ‘가르침’(서로 사랑하라!)에 머물면, 나의 참된 제자들이 될 것이다. 그대들이 ‘진리’를 알면 진리가 그대들을 자유롭게 할 것이다”라고 하셨다.

* 『야고보서』 (1:25)

‘완전한 법’, ‘자유의 법’을 들여다보고 거기에 안주하는 자들은,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행위로 옮기는 자가 됩니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축복받을 것입니다.

○ 예수님의 권위

28. 예수님께서 말씀들을 마치시자, 군중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29. 그분께서 그들의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산상수훈의 가르침

뿌린 대로 거두리라! 황금률을 지켜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선’이요, 그렇지 못하면 ‘악’입니다. 선을 하면 축복이 있고, 악을 하면 재앙이 있습니다. 하느님은 행실대로 갚으시는 분입니다(『로마서』). 그러니 하느님이 주신 ‘율법’을 어겨서는 안 됩니다. 다만 그 율법을 온전하게 완성할 수 있는 힘은 오직 ‘성령의 은총’에 의해서만 주어집니다. 사람은 불가능하나 하느님은 가능합니다(『마태복음』). ‘성령의 사역’이 없이는 내면에서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하느님입니다(『요한1서』).

‘성령의 은총’에 의해 우리는 하느님을 ‘아버지’(Abba)로 받아들일 수 있고, 이웃을 ‘내 형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기적인 ‘욕심’보다는,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양심’을 중시할 때, ‘밖’보다 ‘안’을 신경 쓸 때, ‘남’을 비판하기보다 ‘자신’을 먼저 반성할 때, 원수를 ‘증오’하기만 하기 보다는, 불행한 이웃으로 바라보고 ‘사랑’할 때, 우리는 하느님과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으며, 우리 내면에서는 우리 안의 하느님인 ‘성령의 사역’이 시작될 것입니다.

2012년을 보내며

늘 깨어있으십시오. 우리 내면에서 항상 빛나시는 ‘양심의 현존’을 늘 알아차리십시오. 매사에 ‘양심의 뜻’대로 살아가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황금률’을 실천하십시오. 내가 받고 싶은 것을 남에게 베풀고, 내가 당해서 싫은 것은 남에게 베풀지 마십시오. 남을 돌아보지 마십시오. 나 자신부터 황금률을 실천하십시오. 스스로 양심에 당당해야만 남과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불의를 바로잡으려면 우리 자신부터 양심에 떳떳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자신부터 황금률을 실천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때,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느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이 겨레에 온 누리에 축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오직 양심입니다!